

社說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30일 동안 포천 산정호수 관광지내 행사장에서 "평화의 뿔"을 주제로 국내작가 12명과 국외작가 5명 등 모두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취지에 대해 포천시는 포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도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각 축제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심포지엄은 일반시민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온 현대조각을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진행한다.

이 뜻 깊은 행사를 통하여 세계현대조각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작품들로 산정호수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포천시민과 외부 관광객에게 수려한 자연과 우수한 조형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포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밝힌 이 목적과 취지대로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 있어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첫째, 개막식이 개최된 지난 23일 오후4시 산정호수관광지 행사장에는 일반 시민들보다는 행사관계자와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행사 주관을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사주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개막식 이후 작가들의 작품제작 활동현장에서 해당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관람하는 일반시민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번 행사의 취지에 밝힌 일반시민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온 현대조각을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한다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표정이다.

본래 조각작품은 설계는 작가의 몫이고 제작은 석공들의 몫이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작가가 직접 제작현장에 있는 것처럼 취지문에 밝힌 포천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각축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학전에 개최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셋째, 참여작가의 작품과 주제와의 연관성 및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과의 부합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미국의 작가를 초대했는지, 왜 호주의 작가를 초대했는지,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성이 포천 산정호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산정호수 조각공원은 왜 조성해야 하며 이들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조각공원 조성으로 무슨 문화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포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다.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산정호수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번 이것은 전 시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사실은 있는 지? 궁금하기만 하다. 특히 산정호수 유인책으로 14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산정호수 분수대 설치이후에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7억여원을 투입해 산정호수 조각공원을 조성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포천시는 시민들의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행사 주관을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사주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와의 추진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장준 지방자치의 개념은 시민들 스스로 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개막식 이후 작가들의 작품제작 활동현장에서 해당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뿐

郷土원로초대석 ⑦ ..... 前 가산지서장 楊載克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교육

“6.25전쟁은 북한이 비오는 날 남침한 것” 강조



양재극 전 가산지서장

경찰공무원으로 한국전쟁을 어렵게 지켜낸 楊載克 翁(79.사진)은 영종면 금주리가 고향이며 영북면 문천리 536-3번지에서 50여년을 살고 있다.

양 翁은 해방이후 1948년1월27일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하여 1972년12월25일까지 26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고장을 지키다가 정년퇴임하여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1942년3월18일 영령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10일 포천주유영중공산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45년8월10일 회사를 퇴직하고 1946년5월20일 서울특별시수도과 재료사무소상수기검정원으로 임명되었다가 1947년12월27일 퇴직하고 1948년1월27일 제1관구경찰청 순경으로 투신하여 정년 퇴임까지 근무했다.

가산지서에 근무할 당시에 6.25전쟁을 맞게 된 양 翁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가끔 포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이날을 유난히 포탄소리가 심하게 들렸다고 한다. 칼빈총 하나 메고 죽음을 넘어 가평에서 나오는 길로 양주경찰서(현 남양주경찰서)로 갔다가 창동으로 이동하여 탄압당

에서 집결했다가 차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다.

수원으로 가서 경기도경찰국에 소속돼 용인전투에 배치되었다가 후퇴하여 왜관까지 내려가 공학경비업무에 나섰으며 9.28 수복으로 부산에 집결하여 배를 타고 인천에 상륙했다.

인천에서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미3사단으로 이동하여 관인면 미산리 영국군부대에 배치되었다.

이후 영북지서에 발령났다가 1972년 연천군 백의리 지서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때는 백의리 지서장이 숙직하다가 연탄가스 흡입사건을 해결하려고 보낸 것이 라고 양 翁은 회고했다.

과거 미군부대가 주둔할 당시만 해도 문천은 하나의 군으로 승격돼야 한다는 여론이었지만 미군부대가 빠져나가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양 翁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남한이 북침을 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살피는 노인세대들이 볼 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공무원 퇴직후 1천 여평의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아온 양 翁은 "6.25당시 북한군이 경찰가쪽은 모두 죽었는데 우리 가족만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유교의가르침대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곧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의미하며 양 翁은 26년 경찰생활을 통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온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1980년 이승만 대통령 당시 대통령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경장으로 정년퇴임한 양 翁은 영북노인대학 초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서예활동에 취미를 붙여 각종 서예대전에 참가해 수상하기도 한다.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후학들을 위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쓸쓸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양 翁을 통해서 더욱 크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물포커스

“집념을 불태우며 부지런하게 산다” ‘포천신문은 포천사회 바른성장의 버팀목’

윤이용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포천신문이 지속적으로 한번도 빠짐 없이 신문을 발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며 포천사회가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28세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서울과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가의 꿈을 키워다가 지난 2002년5월 포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온 윤이용(53.사진) 포천신문 운영위원장을 만났다.

윤 위원장은 TV 발명대, 철골구조물 등을 생산하여 아파트건설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주) 동성사 대표이사로 그동안 25여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이 업계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집념을 불태우며 부지런하게 산다”를 생활철학으로 삼아 성실하게 노력해온 윤 위원장이 사업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TMF를 맞아 17억원의 부도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17억원의 부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오직 신용과 성실함이 무기였다고 밝히며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소방방재청의 구호처럼 재난대비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각종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가한 각 기관 및 단체는 각각 A조와 B조로 나뉘어 포천 시내와 포천전면, 구유천, 행사장 주변의 정화 활동과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중앙119 구조대는 헬기를 이용 중상자 주변을 날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또 윤 위원장은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5년 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상 똑같은 제품으로는 승부를 걸 수 없다. 5년 후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생존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고 강조한다.

포천신문 운영위원으로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언제나 바른뉴스를 공급하는 포천신문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

청량리 시조사에 1년에 두 차례씩 사회봉사활동에 나서는 윤 위원장은 더욱 부지런하게 일에 몰두할 계획이라고 한다.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윤 위원장은 “매월 정기회의 실시 2-3일전에 위원장단이 모여 회의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회의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 상호간의 업체정보는 물론 생산품목 등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일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으른 사람은 발전이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윤 위원장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통해 (주)동성사의 발전과 포천신문사의 튼실한 성장이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계단은 한 계단부터 올라가야 한다’ ‘포천신문은 포천시민의 친구가 되었다’

양주승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2003년9월부터 포천신문 자문위원장으로 포천신문이 언제나 바른뉴스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에 나선 양주승 위원장(57.사진)을 만났다.

양 위원장은 “포천신문이 지난 2년 동안 눈에 띄게 발전했다. 체계적인 운영체계와 지원조직의 구성등이 2년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시민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 등의 지원조직강화와 민속경기대회와 가족 송년의 밤 등을 통해 인지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준 것은 포천사회의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포천로타리클럽 회장과 미술협회 부지부장, 법원 민사조정위원장, 교회 장로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포천사회에 봉사해온 양 위원장은 포천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여행을 통해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우리사회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양 위원장의 문화마인드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자문을 했을 때 신문사측에서 잘 받아들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자문위원들의 독자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신문제작에 잘 활용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양 위원장은 택지개발과 더불어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계단은 한 계단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진리를 생활철학으로 삼아 살아온 양 위원장은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서로의 모습

에서 좋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합하고 화합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포천시민들은 포천신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의 국을 다녀보았지만 포천시민만큼 산자수명하고 아름다운 고장을 없었기 때문이다.

포천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43.47만 국토대자투리방을 이용한 꽃밭 가꾸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휴식공간으로서 마음의 푸근함을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포천시는 관광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 만리장성에 가 보면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 모택동이 만나 최초로 정상회담 후 만리장성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不到長城非英雄”(만리장성에 도착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이라는 말로 이 말은 정상에 오르기를 꺼리는 닉슨대통령을 올라 가게 했다는 일화다.

이 역사적 사실을 관광상품화 했다. 다름 아닌 정상에서 이 문구가 새겨진 기념품을 판매하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 항상 이곳에는 긴 행렬의 줄을 목격할 수 있다.

여유와 아이디어의 개발로 포천시를 문화예술과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재난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포천천 둔치서 재난예방 캠페인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지난 27일 포천시 신읍동 포천천 둔치 주차장에서 여름철 중앙단위 재난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며 포천시가 협조한 이번 캠페인은 우기를 맞아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해취약지구 방재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 차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재난에 대한 전 국민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권욱 소방방재청장, 경기도 이석우 행정2부지사, 박은국 포천시장이 참석한 캠페인은 소방방재청, 경기도, 포천시, 중앙단위 자원봉사 7개 단체(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회)와 중앙단위 270명, 경기도, 포천시 3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

됐다.

권욱 청장은 캠페인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6월 1일 개칭한 소방방재청이 사고의 사전예방, 방재의식 제고를 위해 사단, 환경, 농업 등 전 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라며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소방방재청의 구호처럼 재난대비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각종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가한 각 기관 및 단체는 각각 A조와 B조로 나뉘어 포천 시내와 포천전면, 구유천, 행사장 주변의 정화 활동과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중앙119 구조대는 헬기를 이용 중상자 주변을 날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소방방재청이 지난 27일 포천시 신읍동 포천천 둔치 주차장에서 여름철 중앙단위 재난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가운데 참가 기관 및 단체 회원들이 포천천 둔치의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쟁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6.25참전유공자기념비 건립 1주년 기념식

(사)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포천시지회(회장 이금중)는 지난해 7월 27일 건립한 영종면 양문리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지(38후계소)에서 지난 27일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점현정 체결 52주년과 포천지역 최초의 전직자인 영종면 양문리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는 6·25 참전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기념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포천신문)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